목사들의 성적 타락과 교회의 해결책

고전6:12-20

요 근래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강해. 리더십,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살펴봄

이런 죄악 중 하나가 성도들(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

느헤미야기를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이것이 백성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

구약 시대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은 역사가 깊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일부일처제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첩을 둠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4000년 이상 민족적인 갈등이 존재함

성경의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하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다.

그 뒤로 그의 가정에는 성적인 죄가 반목되고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의 맏아들 암논은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한다.

압살롬이 그를 쳐서 죽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여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고는 죽고 만다.

밧세바 사이의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1000여 명의 아내와 첩을 둔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

왕들이 이 모양이므로 백성과 신하들은 자연스레 간음, 음행, 동성애, 낙태, 수간 등을 자행한다.

그리고 결국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패망한다.

십계명(출20:17), 이웃의 아내, 레20:10

렘5:8, 겔22:11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백성은 성적이 타락을 지속함: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리새인들 등 종교 지도자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함(마19:3; 눅16:14; 18)

그러면 신약 교회는 어떤가?

대표적인 사례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함(간음)

고전6:9, 음행의 문제: 12-20절 설명

교회 안에 간음과 음행이 존재하므로 바울은 꾸준히 글을 쓴다.

고전5:11, 7:2, 10:8, 고후12;21, 엡5:3, 골3:5

살전4:3

바울은 이처럼 여러 곳에서 간음과 음행을 피하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

딤후3:5-7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사람들 자체가 교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적 범죄를 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과거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성적 범죄가 백성의 타락의 원인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도 말이 있다: 목사가 돈과 여자 문제만 없으면 일단 성공한 것이다.

자,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익들의 미투 사건 발생

요즘 우리는 미투 사건을 많이 접한다. 깨끗한 척 하는 좌익 세력들의 내로남불 사례

안희정 충남 지사, 오거돈 부산 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 고은 시인, 문재인 절친 이윤택 등등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불똥이 교회로도 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들의 성적 타락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삼일 교회 전병욱 목사, 만민 교회 이재록 목사, 성락 교회 김기동 목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사역이 중단된 목사들이 있다.

2018년 7월,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가 7월 13일 당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아무개 부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그 목사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매주 새 신자 예배 설교를 담당해 왔다. 교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목사교회를 떠난 것은 여성 교인 A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 목사는 A와 2017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목사는 불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 목사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 교회 내의 뿌리 깊은 여성차별 ▲ 목회자들의 낮은 성 평등 의식 ▲ 목회자 양성기관(신학대)의 부실한 성교육 ▲ 교회 내 성범죄 관련 신고·상담기관 전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 내 성폭력은 남성 목사-여성 신도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성직자-신도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최순양 이화여대 박사는 2015년 5월 '교회 성폭력의 현실과 과제' 포럼에서, 한국 교회가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이유로 '남성 중심적 교회 문화'를 꼽았다. 교회 내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순종적인 여성상, 남성 중심적 성서해석 등이 교회 내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남성) 목회자들의 성폭력은 주로 교회 신조나 믿음 체계, 여성 신앙 교육 등을 악용해 발생할 때가 많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이 교묘히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남성 중심적 성서해석, 기독교 교육에 익숙한 여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남편, 남성 목회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목회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최순양 박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교단·교회 내 성 평등 의식 부재, 성차별적 분위기가 꼽힌다.

최순양 박사는 이어 교회의 안일한 대처에도 일침을 놨다. "교회는 성폭력에 대한 윤리적·신학적 통찰을 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여전히 힘 있는 목회자(가해자) 편을 들고 이를 두둔·은폐하는가 하면, 피해자(여성)를 되레 비난하고 고소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교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여성은 '꽃뱀' 혹은 '이단'으로 취급되곤 했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다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수치

바울의 로마서 2장 21-24절

미국의 사례

미국은 문화가 매우 개방적이다. 남녀가 서로 포옹하는 등의 행위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목사들의 성폭력 혹은 성추문 소식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고 말았다.

지미 스웨거트: 하나님의 성회 유명한 목사

창녀와의 간음(1988), 회개했다고 하고는 3년 뒤에 또 간음

짐 베이커와 PTL

2020년 11월, 뉴욕 힐송 교회 칼 렌츠 목사 성 범죄, 그 교회는 2018년에도 문제가 됨

찬양과 경배 문화가 음란함을 일으킨다(과도한 노출, 신체 접촉 등).

고든 맥도널드, 매사추세스 주 렉싱턴 교회 목사, 잘 나가던 목사, 그러나 성도와 불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음, 그 뒤 부인의 용서를 받고 재기함. 빌 클린턴 섹스 스캔들, 그에게 조언을 해 주는 목사로 등장함, 이런 사례가 있지만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사례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목사의 성적 타락 문제와 치유 방법 등에 대한 글이 매우 많다.

목사의 복권에 대한 기사도 많다. 어떻게 얼마나 있다가 목사를 다시 할 수 있는가?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바이블 빌리버라는 호칭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하자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가 바로 독립침례교회
지금부터 10-15년 전 연구년 미국 방문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를 찾다가 좋은 곳을 발견해서 다님
목사가 젊고 인물도 좋으며 리더십도 있고 해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함
여러 명의 아이들도 두고 그의 아버지 역시 독립침례교회 하고 은퇴한 좋은 분
한 번은 내가 방문했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함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소식이 들여오기 시작함
교회의 피아니스트와 일이 벌어져서 결국 사임하고 쫓겨났다고 함
아마도 위계로 눌러 가면 악한 일을 한 것으로 보임
아주 좋은 가정(목사의 아들), 본인도 좋은 가정, 여러 아이들,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함
그의 인생, 가족, 교회 등 피해가 보통 큰 것이 아님
2012-2013년 믹구 인디애나 주 해몬드 제일침례교회, 잭 하이릇, 그의 사위 잭 스캅
청소년과 음행 비리, 10년 복역, 하일스의 아들 데이빗 하일스, 부목사 시절 역시 청소년 음행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언급되어 있음

사무엘기 상, 대제사장 엘리, 재판관, 대제사장, 국가의 최고 치리자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함(삼상2:22-25)
결국 이 아들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곤경을 겪고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고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기록됨
신약 시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럼에도 교회의 치리자라는 측면에서 목사는 구약 시대 제사장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한다.
제사장들의 성적 타락, 본인, 가족, 국가 패망의 원인
마찬가지로 목사의 성적 타락 본인, 가족, 교회, 국가 패망의 원인
그러므로 교회는 신중하게 목사를 임명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같은 젊은 목사들에게 여자 문제를 조심할 것을 부탁한다.
즉 성적 타락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한다.
딤전5:2, 젊은 여인들을 내 자매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내 동생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어떻게 동생을 겁탈하고 강간하겠는가?
딛2:4-5, 교회에서 목사는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젊은 여인들에 대한 상담은 나이든 자매들이 하게 해야 한다.
목사는 여인들을 만날 때 항상 자기 부인이나 제3자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젊은 자매에게 전화하거나 카톡/문자 보내거나 같이 운동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모든 그룹의 리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이다.
즉 교회에서든 모임에서든 부부가 아니 한 남자와 여자 둘이 있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이것을 매우 강조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 교회 안에서 성추문, 성 폭력 사건이 있어나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피해는 성도들에게도

돌아가고 하나님께 무한대의 수치가 돌아간다.

그러므로 목사, 집사, 교회의 리더들은 남녀가 모이는 것에 늘 유의해야 하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둘이 만나거나 놀거나 운동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등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성적 타락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가?

1.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목사는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에게도 꼴을 먹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독립 교회 진영에서 목사를 한 지 20년이 되고 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사암이 목사를 하겠다고 설교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례들을 보았다. 이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한 것이다.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이 이런 사람은 구별해서 절대로 목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

2. 과거에 성적 타락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목사를 안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다. 불확실한 사유로 여러 차례 이혼한 경력, 아내를 구타한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해도 본인이 삼가야 하고 목사 안수를 주지 말아야 하며 교회가 지도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떤 분의 질문: 목사 아내가 죽었는데 목사가 자기보다 20살 적은 여자와 결혼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합법적인 결혼이라면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할 것이다.

3. 목사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여인이 눈에 아른거리면 목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 이것은 본인과 본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좋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a. 나이가 든 목사와 20-30대 비서가 있는데 이 비서를 보면 성충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가서 말하고 그 결과 본인과 그 대상자가 아는 경우, 사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이재록, 김기동 목사 사례). 심지어 7-80대 목사도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깨끗이 목회를 그만 두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목회가 아니다. 목회를 망치는 것이다.

b. 또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그 자매를 보고는 "젊어서부터 꿈꾸던 내 마음의 이상형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밤낮으로 그 여인 생각이 나고 심지어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고백하거나 하는 일들, 이것은 대다수 한국 목사들의 성적 타락의 원인이다.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둘이 만나거나 놀러가거나 하면서 이런 것을 고백하고 속삭이는 자는 목사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c. 교회의 집사 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교회와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일은 없다. 그러므로 숨기고 덮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 뒤 2-3명이 가서 말하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독립침례교회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심지어 이런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위험이 늘 나를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내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교회는 나를 보호하고 주님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고 특히 성적인 타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누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지, 집사 등 리더가 되든지 이런 악한 일로 본인과 가정,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하며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가하는 일일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고전6:18-20

삼삼2:24-25, 딛2:7,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